

봉선사 교구 간담회
문화재 반환 등 논의

조계종 교구본·말사 주지 및 신행 단체장 간담회에서 봉선사 측이 "서천국 108대 조사인 자공 화상의 수기(受記)에 의해 건립된 화암사지가 정부에 강제 수용 당할 위기"라며 종단적 지원을 요청하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률적 검토 뒤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월 22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협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봉선사 측은 용문산 상원사 대종, 회암명 청동발우 등 사라진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법장 스님은 "총무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원사 대종은 봉선사 요청대로 꼭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전략적 환경평가' 추진
환경부 올해 주요사업

환경부가 올해 주요사업으로 개발사업 최초 정책·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조정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국장은 3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도로 전성산·금정산 관동 구간에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 문제와 관련,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올해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고 국장은 "올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확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해 평가서 작성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BBS 사장 공채키로
대한불교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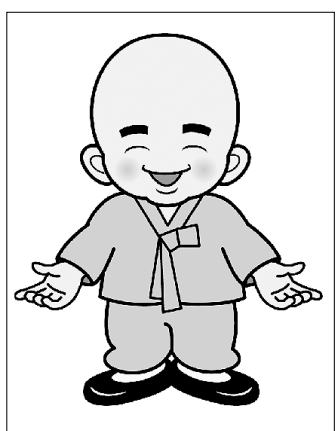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문각은 3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후임사장을 공개채용하기로 결의했다. 진흥원 이사회는 4월 중순이후 불교계 신문에 불교방송 사장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재임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김규철 사장에 대해서는 정관상, 운영규정상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성희 기자

올 봉축행사 '국제화'에 초점

5월23일 연등축제 '화합·희망' 테마로
포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전국 준비 돌입

올해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가 5월 11일 오후 7시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열린다.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등 전시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개막식은 21일 낮 12시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된다. 연등축제 전야제인 '연등놀이'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사, 우정국로, 인사동 등지에서 펼쳐진다.

5월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불교문화마당'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동대문야구장에서 개최되는 '어울림마당'에서는 3만여 제등행진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등법회' 등을 봉행한다. 어울림마당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등대문에서 우정국로까지 연등행의 신명나는 음악과 율동 속



올 봉축 대표 캐릭터인 '포어'를 소개하는 포어 캐릭터인 환영동자. 올 봉축 대표 캐릭터인 환영동자. 올 봉축 대표 캐릭터인 환영동자.

로에 도착한 제등행진단과 시민들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우정국로에서 '대동한마당'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서원을 태워 희망의 불씨를 만드는 '서원문 소지' 등을 통해 연등축제가 '화합과 희망의 축제'임을 느낄 수 있다. 봉축법요식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계사에서 전국 사찰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봉축위원회 홍민석 홍보담당은 "이번 봉축행사는 국제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 참가한 태국, 네팔,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일본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미희·남동우·배지선 기자

'탄핵무효·화합상생' 촉구

종교인들 단식·삼보일배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종교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안동에서 탄핵 무효를 선언하기도,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 개혁교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07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북안동지역 카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지도자 7명은 18일 '탄핵 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지역

종교지도자 릴레이 단식선포식'을 갖고 안동시 삼산동 조흥은행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가 20일 원각사 앞에서 '탄핵무효 민주수호 불교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3월 23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안정과 국민, 시민 화합을 위한 사국 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동국대 교수 31명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스님 등 80여명과 함께 교내 불상에서 후문까지 400m를 삼보일배로 행진하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호소했다. 공동취재단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수행과 여성문제' 등 6개 주제

6월27일부터 중앙승가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주최하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린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현제와 과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 핵심 소모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종교학자 파울라 아라이(미국) 교수 등 45개국 700여명의 출·재가자, 불교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본행사인 학술발표(6월 27일~7월2일)와 사찰순례(7월 3

일~5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술발표 기간에는 6개 주제에 따라 참여 불교계의 수행, 불교수행과 여성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찰순례 기간에는 해인사, 불국사, 운문사, 석남사 등을 참배하며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3월 23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이번 대회는 비구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체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66-9580 www.seoul-sakyadhita.org 한성희 기자

"여성불자, 數에 비해 위상·활동 극히 저조"

신도단체 지부장급 이상
임원 중 여성불자 4%

최근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창간호로 발간한 격월간 잡지 <우바이예찬>에 실린 활찬의 씨(조계종 총무원 사서과장)의 '통계로 본 여성 불교 현황'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위상이 턱없이 낮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단 1만2천여 스님 가운데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비율은 반반. 그러나 공할 900여 곳 가운데 비구 스님이 주지인 사찰은 600여 곳(69.6%)을 훨씬 넘는 데 반해 비구니 스님이 주지인 사찰은 250여 곳(30.3%) 정도.

81석인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비구니 스님 몫은 10석뿐이고, 각 교구 본사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피선거리는 없다.

여성 재가불자의 위상도 마찬가지. 조계종 등록 신도 중 여성불자는 65.7%로 남성불자 34.28%에 비해

거의 두 배. 하지만 중앙신도회 대의원 수는 전체 116명 가운데 남성불자가 86%인 반면 여성 불자는 14%에 불과하다. 조계종 등록 신도단체 지부장급 이상 임원 중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4%이고 남성불자는 95.56%. 한명우 기자

"우린 모두 부처를 닮았지요"



의정부 교도소 재소자들이 3월 22일 선재동자원을 찾아 불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3월 22일 의정부의 선재동자원은 색다른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경기도 지장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의 자원봉사단체 '부처를 닮은 사람들'과 출소를 앞둔 의정부교도소 모범수 20명이 바로 그 주인공. 분기별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일일외출을 나온 재소자들은 수송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아이들이 묶는 방으로 향했다. 방을 출고 뒤고, 책상을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 봉선사를 참배하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달에 출소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김도 군(22) 재소자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처를 닮은 사람들의 회원들의 감회도 남다르다. "사실 처음에는 힘들고 고달팠

수지포교원 자원봉사자·재소자 선재동자원서 즐거운 하루

결례되고, 넘어놓은 빨랫감을 개는 재소자들의 손길은 의무 그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자, 식자들 드시고 하세요."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들은 재소자들을 위해 밥세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향긋한 사랑을 나눴다.

점심공양 후 의정부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 수원 도선사 해법 스님, 상계동 천문사 진승 스님 등과 함께 남양주 봉선사를 찾은 재소자들은 가슴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인연이 닿아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봉사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청정원(민준우, 41) 보살말에 옆에 있던 자성명(김위숙, 51) 보살도 한수 거든다. "맑고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은 소외된, 그래서 더욱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길이야."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들은 의선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소자교화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의정부=김은경 기자

여성지도자 강좌 등 개설 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서울 장충동 소재 건물(6층, 대지 200여 평) 매킨을 추진한다.

불교아카데미는 3월 19일 불교경영정보센터에서 3차 이사회를 열고, 재가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독자적인 종합 공간 제공과 건 강한 재무구조 확립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올해 교육 및 컨설팅 과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불교 인력양성 인턴십 과정 △30~50대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한 리더십 강좌 △NGO활동가 전문 강좌 등을 개설하기로 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 리서치 실시, 불교계 인적자원 관리 및 불교계 신규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사찰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스님과 중무원 대상 교육·업무 매뉴얼 제작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우고
불보총합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시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9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이며 계를 대신 받아주는 것 또한 대자비의 보살행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며 특히 입재시 중국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법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두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8년 3월



- 일 시 : 불기 2548년 갑신년
 - 입재일 : 2004년 4월 23일 (음 3월 5일) 금요일
 - 회향일 : 2004년 4월 25일 (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사사리 중산 해남 대화상
- 동침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화엄전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 밀양 표총사 (055)352-1150
 - 밀양 무봉사 (055)354-3296
 - 창녕 포교당 (055)533-2295
 -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 대중교통 - 부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구 : 고속터미널 「부산행 일반고속」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중산 해남 대화상 주지 이산 현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화엄전 접수처 : 055)381-1288